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골절

논문제목 대퇴골 전자부 골절을 가진 고령의 환자에서 조기 수술이 초기 합병증
및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

영문제목 **The impacts on early morbidity and mortality of trochanteric
fractures of the femur in elderly patients with early surgery**

발표자 조영호 책임저자 조영호

저자 변영수, 조영호, 장세양, 유현승, 박기홍, 정철

기관명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

서론 : 대퇴골 전자부 골절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을 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조기에 시행한 내고정술이 초기 합병증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대퇴골 전자부 골절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을 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조기에 시행한 내고정술이 초기 합병증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수술 시간은 평균 43분(21-80분)이었고, 수술 중 평균 출혈량은 165cc(30-800cc)였다. 술후 섬망이 16명(17.9%)에서 발생하였으나 모두 호전되었으며, 욕창이 1명에서 발생하였으나 창상 치료로 치유되었다. 술 후 1개월째 폐렴이 1명에서 발생하여 사망하였고, 술후 1개월째 폐색전증이 1명 발생하여 사망하였다. 그 외 술 후 3개월 이내에 1명이, 3-6개월 사이에 1명(1.1%)이 사망하였으며, 이들은 사망 후 응급실로 내원하여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었다.

결론 : 고령의 대퇴골 전자부 골절 환자에서 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조기 내고정술은 환자들을 일찍 거동하게 함으로써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합병증을 줄이고, 근위 대퇴골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대퇴골, 전자부 골절, 조기 수술, 초기 합병증, 사망률
